

우리성과 개별성 점화가 대인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암묵적 측정*

배 재 창

한 규 석†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우리성이 점화되는 경우와 개별성이 점화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자신과 상대방이 대응된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사용하여, 우리성과 개별성의 점화가 자신 및 상대방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이 개별성 점화 후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성 점화 후 의미수준에 가깝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암묵적 연합검사의 대응구조상 자신에 대한 태도가 대인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 2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절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단일표적 암묵적 연합검사(ST-IAT)를 사용하여 점화효과를 확인하였다. 점화 전 상대방에게 중립적이었던 태도는 개별성 점화 후 거리감의 증가와 우리성 점화 후 호감의 증가로 확실히 구분되면서, 우리성과 개별성의 점화효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우리성이 점화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별성이 점화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암묵적 측정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는 한국인들이 나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을 일상대화에서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는 이면에는 암묵적 정서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우리성, 개별성, 거리감, 점화, 암묵적 연합검사, ST-IAT, 한국인

* 본 논문은 2010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한규석,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E-mail: ghan@jnu.ac.kr

사람은 몸을 갖고 태어나서 숨 쉬면서 생명 활동을 펼쳐가는 개별적 존재이면서, 아울러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지 않고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의 존재성은 삶의 실존적 본질이어서, 어느 하나만을 갖고 사람들의 판단, 가치, 사고 방식의 복잡함과 역동적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 심리학적 용어를 빌어 표현한다면 ‘혼자 하는 개별성 자기’와 ‘함께 하는 우리성 자기’의 두 가지는 인간의 삶을 구성해 가는 본연적 특성이다(최봉영, 2012, pp. 46-49; 한규석, 최상진, 2008; Baumeister & Leary, 1995; Deci & Ryan, 2000). 문화에 따라 개별성과 우리성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를 수 있고, 개인차가 있지만, 어느 사회에서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두 가지의 특성을 보이며 생활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 교류를 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남들과 구별되는 개체로서의 모습과 함께, 남과 함께 하는 우리로서의 모습은 늘 병존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현저함이 달리 부각된다. 예를 들어, 법관의 진로를 중용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체로서의 개인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예능의 길을 가겠다는 욕구를 억누르며, 부모의 뜻을 수용하려는 우리성의 모습에 부응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인교류의 양상을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하는 틀을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자는 Clark와 Mills(1979)이다. 이들은 개체성이 주로 작용하는 관계를 교환적(exchange) 관계로, 우리성이 주로 작용하는 관계를 우리성(communal) 관계로 구분하여, 두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느끼는 매력의 양상이 다름을 보였다. 즉 상대에게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바로 갚는 것이 교환관계에서는 좋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우리성 관계에서는 도움을 바로 되갚는 것이 그 행위자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의 상황적 틀을 개인의 특성에 적용시켜, 대인관계에서 개체적 접근을 많이 하는 사람과 우리성 접근을 많이 하는 사람을 구분하

여, 분석한 연구(Chen, Lee-Chai, & Bargh, 2001)는 힘/권력이 환기된 상황에서 개체적 접근자들은 자기 이익에 관심을 보이지만, 우리성 접근자들은 자기이익을 희생하며 상대를 돕고자 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인교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을 많은 연구자들은 자기(self)의 특징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즉, 개별성 자기는 남의 것과 구분되는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는 주체로서 자신의 고유한 몸, 독자적인 생각과 느낌으로, 자신을 남과 구별시키는 방식의 사고 및 정보처리 양상을 드러낸다. 우리성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 및 교류하는 사람과의 유대감 및 결합을 추구하고 강조하는 방식의 사고와 정보처리 양상을 드러낸다(Brewer & Gardner, 1996; Markus & Kitayama, 1991; Trafimow, Triandis, & Goto, 1991; Triandis, 1989; Turner, 1985; Voyer & Franks, 2014). 사회적 상황에서 개별성 자기가 활성화되는 경우에 자신의 독자성을 강조하게 되는 마음 갖춤새를 보이며, 자기의 개인적 정체감에 바탕하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남과 구별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자신의 내면에 바탕한 판단과 행위를 보인다. 한편, 우리성 자기가 활성화되는 경우에,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의무, 주위 사람들과의 연결, 유대, 유사성을 중요시 하는 판단과 행위 양상을 보인다(Gollwitzer, Heckhausen, & Steller, 1990; Hogg & Turner, 1987; Trafimow et al., 1991). 따라서 개인의 취향보다는 주관적 사회규범에 쫓아서 행동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보인다(Kühnen & Hannover, 2000; Ybarra & Trafimow, 1998).

이들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면, 자신의 이름을 역하 자극으로 제시받아 개별성 자기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실험과제를 한 후 대기실 의자에 앉을 때 이들은 우리성 자기가 활성화된 상태에 처한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참가자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를 선택하는 양상이 나타났다(Holland, Roeder, van Baaren, Brandt, &

Hannover, 2004).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도 개별성 자기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는 자신을 개성있고, 남과 구분되며,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우리성 자기가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자신을 규범적인 사람이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alwani & Shavitt, 2009). 우리성이 현저해진 경우에는 개별성이 현저해진 경우보다 같이 일했던 동료가 떠나는 가상적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줄 선물을 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alwani & Shavitt, 2009, 연구 2).

우리성 자기가 환기된 경우에는 주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갖고, 통상적인 사회규범을 좇는 선택을 하거나(Kim & Markus, 1999), 타인의 결정에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며(Iyengar & Lepper, 1999), 상대방의 버릇을 따라서 흉내를 더 내며(van Baaren, Maddux, Chartrand, De Bouter, & van Knippenberg, 2003),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더 받으며, 자신이 규범을 잘 존중하며, 동료에 대하여 많이 신경을 쓰고 배려하는 사람으로 노력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Lalwani & Shavitt, 2009, 연구 2), 어려운 문제풀이 과제에서 개별성이 환기된 경우에는 우리성이 환기된 상황의 사람들 보다 더 높은 수행을 보이지만, 이런 수행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연구 5). 개별성 자기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고유함을 추구하는 동기가 촉발되어 일반적인 범주(자동차 등)의 것을 그리게 하였을 때 우리성 자기가 활성화된 상황의 사람들에 비해서 해당 범주의 비일상적인 개체들(탱크, 골프카트 등)을 그리는 양상이 높게 나타났다(Wickens & Stapel, 2008). 개별성의 활성화는 자기와 타인의 관계를 표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어, 각기에 상응하는 가치관을 촉발시키며, 정보처리 양상을 불러온다. 즉,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으로서의 자기모습이 강조되면서 자신을 주위 사람들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인식하며, 우리성

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의 자기표상이 부상하면서 사회적 관계에서 주고 받는 정보처리의 양상도 달라진다(van Baaren et al., 2003).

여러 연구들에서 사회생활에서 활성화된 사회범주를 접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그 범주의 사람 행동에 동조하거나, 흉내를 내거나, 자신의 태도를 맞추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상대와 어울리는 교류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실제로 상대를 흉내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Chartrand & Bargh, 1999; Kawakami, Dovidio, & Dijksterhuis, 2003). 가깝거나 가까울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호감을 느끼는 것이 지니는 진화론적인 잇점 때문에, 이런 호감 반응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반응은 상대방에 대하여 느끼는 친화감의 강도, 상대방이 주는 친밀도의 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Lakin & Chartrand, 2003),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상대에게 맞추는 행위가 나타나지만, 예의 없는 실험자를 대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Sinclair, Lowery, Hardin, & Colangelo, 2005). 이런 반응 양상은 심지어 상대가 가시권 안에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나타난다(DeMarree, Wheeler, & Petty, 2005; Kawakami, Spears, & Dovidio, 2002).

사람들은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그를 나와 분리되지 않은 우리, 즉 확장된 자기로서 여기는 경향을 보이며, 그런 경향이 강할수록 상대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Agnew, van Lange, Rusbult, & Langston, 1998). 친밀한 관계에서는 자기를 확장시켜 상대를 포함시키므로, 상대방의 특징을 공유하는 양상을 보인다. 사람들은 자신과 친밀한 상대방이 공유한 성격특징의 공유 여부를 판단할 때 그렇지 않은 성격특징보다 훨씬 빠른 반응을 보인다(Aron, Aron, Tudor, & Nelson, 1991; Smith, Coats, & Walling, 1999). 이런 결과로부터 유추할 때 우리

성을 점화시킬 때 상대방에 대하여 느끼는 친밀감이 개별성을 점화시킬 때에 비해서 높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허태균, 박정열, 및 최상진(2002)은 한국인 참여자들에게 ‘우리’와 ‘남’이라는 단어를 제시하여 점화한 다음, 사진으로 제시된 인물의 인상을 호오차원(1점 나쁜 ~ 7점 좋은)과 친소차원(1점 ‘싫어하는’ ~ 7점 ‘좋아하는’)의 명시적 척도 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우리’가 점화된 조건에서 대상을 ‘좋은 사람(good)’이면서 ‘좋아하는 사람(like)’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남’이 점화된 조건에서는 대상을 ‘나쁜 사람(bad)’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싫어하는 사람(dislike)’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 박정열과 허태균(2006)은 ‘우리’와 ‘남’을 식역화 자극으로 제시하였는데, 두 조건 간 차이는 호오 차원보다 친소 차원에서 크게 나타났다. ‘우리’와 연합된 대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친밀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성 관계를 통해 ‘우리 ~’라고 일컬어지는 대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친밀한 정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우리성 자기가 점화되는 경우에 개별성 자기가 점화되는 경우에 비해서 상대방에 대한 친근감과 호감이 증가하리라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면에서 이런 결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시행되었다. 첫째,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개별성 혹은 우리성을 촉발시켜 상호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여, 각 조건에 따르는 상황 처치를 하여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해 왔다. 일부 연구들에서 통제 조건과 개별성, 통제조건과 우리성 점화 조건을 비교하였지만, 이는 결과를 비교하여 변화과정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집단 내 설계에서는 점화 후에 나타나는 변화를 점화 전의 상태와 비교하여 점화의 인과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개별성-우리성을 점화시켜 자극으로 제시된 가상인물이나 친구와 가족처럼 특정 개인이 아닌 대상에 대한

태도변화를 명시적 측정법으로 의식적 수준에서 알아보았다(박정열, 허태균, 2006; 허태균 등, 2002; Suh, Diener, & Updegraff, 2008). 이 연구들에서 평가자는 피평가자와 대면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상대방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마주하는 대면 상황에서 상대방을 평가하였기에 참여자들은 서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평가를 받게 되거나(안미영, 1998),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김민정, 현명호, 2010), 거절당할 경우(Greenier et al., 1999) 자존감이 손상되는데, 자신의 평가로 인해 상대방의 자존감이 상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인은 정서 표현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이은경, 서은국, Chu, Kim, & Sherman, 2009). 따라서 명시적 평가는 이런 정서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부정적인 평가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자신도 상대방에게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참여자가 상대방에게 호감이 없더라도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 경우 명시적 평가에서는 의식적인 왜곡이 나타난다(Bosson, Swann, & Pennebaker, 2000; Fazio, Jackson, Dunton, & Williams, 1995).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제시하려는 특성을 지니므로 점화 전 명시적 평가결과를 기억할 경우 점화 후 평가에서 이전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Kelley & Mirer, 1974; Suh, 2002).

그러나 암묵적 측정의 경우 자극을 범주화하거나 의미를 변별하는 과제에서 반응시간을 측정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를 산출하므로 참여자가 연구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Dovidio, Kawakami, Johnson, Johnson, & Howard, 1997; Fazio et al., 1995). 따라서 상대방과 마주한 상태에서 서로를 평가하게 되더라도 명시적 측정에 비해 자신을 우호적이고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Fazio & Olson, 2003). 점화를 전후로 대인평가가 반복되는 실험상황에서 암묵적으로 측정하게 되면 자

신과 상대방의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참여자는 점화 전 평가결과를 참조할 수 없으며,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솔직하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암묵적 측정결과를 통해 미래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Greenwald, Poehlman, Uhlmann, & Banaji, 2009; Nock et al., 2010).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해볼 때 사람들이 대면한 상태로 서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합하리라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인교류 상황에서 개별성과 우리성의 점화가 상대방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암묵적 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개별성과 우리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점화과제를 만들었고,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암묵적 연합검사를 제작하였다. 연구 1에서는 표적대상으로 ‘자기’와 ‘파트너’를 대응시킨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를 사용하여 점화 이후 자신 및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평가만을 살펴보기 위해, ‘파트너’가 유일한 표적대상인 단일표적 암묵적 연합검사(Single Target IAT)를 사용하여 개별성 및 우리성의 점화효과를 비교해보았다.

연구 1

본 연구에서는 자신과 상대방이 마주하는 상황에서 개별성 혹은 우리성을 점화하여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험을 통해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개별성 관계와 우리성 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점화과제를 만들었고,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이하 IAT)에서 사용할 긍정·부정단어를 선정한 다음 표적으로 ‘자기’와 ‘상대’를 대응시킨 검사를 제작하였다. 실험에서는 참여자들이 1차 IAT검사를 수행하여 기저선을 구한 후 점화과제를 제시하고서 2차 IAT검사를 수행하게 하여, 점화 전후에 자신 및 상대방에 대

한 평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사람들은 자신(내집단)이 긍정특성, 상대(외집단)가 부정특성과 연합될 때 편안하고 신속하게 반응한다. IAT에서 태도와 반응특성이 일치하는 것을 양립조건(compatible)이라고 한다. 반면 자신이 부정특성, 상대가 긍정특성과 연합되면 불편하고 반응하는 데 있어 저항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비양립조건(noncompatible)에서는 태도와 반응특성이 불일치하게 된다(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표적대상별 특성을 구분하였던 기존 연구들에서 사람들은 좋아하거나 추구하는 대상이 부정적인 조건에서 반응시간이 매우 느려진 반면(Ferguson & Bargh, 2004; Fishbach & Shah, 2006), 혐오하거나 목표추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긍정특성과 연합된 조건에서 반응시간이 지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배재창, 안상수, 한규석, 2004; 윤혜영, 권정혜, 2011; Fazio et al., 1995; Fishbach & Shah, 2006). 각 조건에는 자신과 상대에 대한 반응이 공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표적대상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개별성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아껴 주는 마음이 약하고, 사물처럼 대하면서 서로 거리를 유지하며,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다. 또한 ‘남’이나 개인주의가 점화된 조건에서는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상대방은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김정식, 송유진, 이성수, 2008; 박정열, 허태균, 2006; 허태균 등, 2002). 하지만 우리성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아껴 주면서,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며,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고려한다. 그리고 ‘우리’가 점화된 조건에서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박정열, 허태균, 2006; 허태균 등, 2002). 집단 및 관계주의가 점화된 조건에서 자기고양 동기는 감소하였다(김정식 등, 2008). 이에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난 상황에서 개별성의 점화는 자신과 상대방의 구분을 강화시켜 자신에 대한 태도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꾸고,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더욱 부정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가

설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성의 점화는 자신과 상대방의 구분을 약화시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감소시키고,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더욱 긍정적으로 바꿀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와 같이 개별성 혹은 우리성의 점화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각기 다른 양상으로 변화한다면 점화조건과 반복측정 요인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가설 1: 개별성을 점화하면 자신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우리성을 점화하면 자신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은 감소할 것이다.

가설 3: 개별성과 우리성 점화를 전후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방 법

실험 참여자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50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21명(42%), 여자 29명(58%)이었다. 참여자들은 실험에 참여하는 보상으로 가산점을 받았으며, 2명씩 나란히 앉을 수 있는 PC실에서 전공이 달라서 서로 모르는 사람과 짝을 이루어 참여하였다.

실험 설계

점화조건(집단 간: 개별성, 우리성)과 반복측정(집단 내: 점화 전 1차 IAT검사, 점화 후 2차 IAT검사)으로 구성된 2X2 혼합 요인 설계로 구성하였다. 개별성 점화조건에 26명(남자 12명, 여자 14명), 우리성 점화조건에 24명(남자 9명,

여자 15명)을 배정하였는데, 실험에 참여한 순서가 홀수 번째인 참여자집단은 개별성, 짝수 번째인 참여자집단은 우리성 점화조건으로 배정하는 무선배정의 원리를 따랐다.

점화 과제

본 연구에서는 사진을 제시하여 개별성(혼자 달리는 사람, 직장인의 경쟁, 혼자 배낭여행하는 사람) 혹은 우리성(어깨동무한 꼬마, 시각장애인 과 안내견, 어머니와 아기)을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성의 경우 관계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두 대상이 마주하는 자극을 선택하였다. 제시된 조건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내용을 3분 동안 기록하도록 그림 1과 같이 점화과제를 구성하였다. 실험에서는 점화과제를 인쇄하여 1차 IAT검사 측정 이후 3분 동안 제시하였다.

선택된 우리성 점화사진들은 둘이 함께 활동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연구의도와 다르게 참여자들은 우리성이 아닌 협력을 연상할 수도 있다. 또한, 개별성 점화사진들은 달리기와 직장에서의 경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쟁을 연상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처치 목적에 맞게 개별성과 우리성을 연상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점화과제에서 참여자들이 작성한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암묵적 연합검사

실험에서 사용할 검사를 만들기 위해 'Millisecond'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www.millisecond.com>)에서 IAT 전용인 'Inquisit-3.0.6.0'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였다. 'Inquisit-3.0.6.0'은 검사의 진행에 맞춰 실시간으로 반응 시간과 함께 정반응 및 오반응이 기록되었다.

검사에서 사용할 긍정·부정 특성단어를 선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나은영, 권준모, 2002; 안상수, 김혜숙, 2003)에서 사용된 긍정단어 22개와 부정단어 21개의 긍정성과 친숙도를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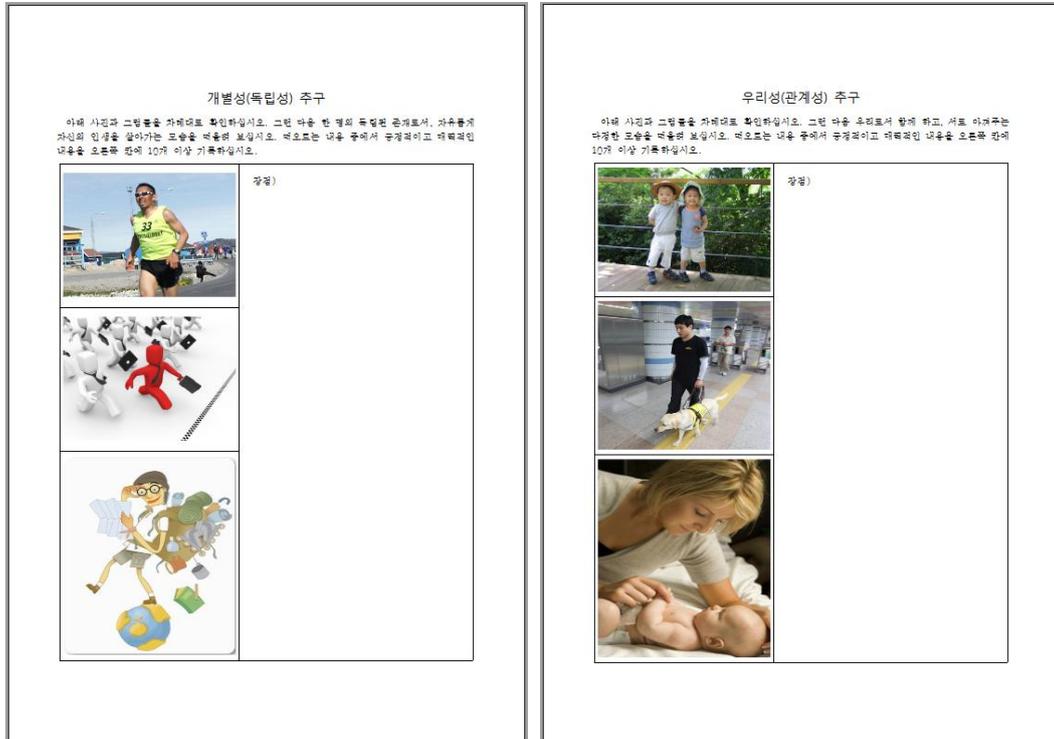


그림 1. 개별성과 우리성을 점화하기 위해 제작한 점화과제

생 30명(남자 15명, 여자 15명)에게 7점 척도로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긍정성 척도는 1점을 ‘매우 부정적’, 7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제시하였다. 긍정단어로는 긍정성이 높은 순서대로 ‘행복’, ‘사랑’, ‘평화’, ‘기쁨’, ‘건강’, ‘감사’, ‘희망’, ‘신뢰’, ‘생명’, ‘미소’ 등 10개 단어가 선택되었다. 긍정단어들의 긍정성 평균은 6.38($SD = 0.67$), 친숙도 평균은 5.5($SD = 1.09$)였다. 부정단어로는 긍정성이 낮은 순서대로 ‘폭력’, ‘전쟁’, ‘질병’, ‘불행’, ‘불신’, ‘배신’, ‘질망’, ‘구토’, ‘미움’, ‘고통’ 등 10개 단어가 선택되었다. 부정단어들의 긍정성 평균은 1.91($SD = 0.85$), 친숙도 평균은 4.41($SD = 1.42$)이었다.

사전조사에서 선택된 긍정·부정 단어 20개와, 자신에 해당하는 ‘자기’ 및 상대방에 해당하는 ‘파트너’를 표적으로 포함하는 IAT를 제작하였다. 검사 절차는 그림 2와 같았다. 참여자들

은 먼저 긍정단어와 부정단어를

20회 변별한 다음(블럭①), 자기와 파트너를 20회 변별하였고(블럭②), 두 조건이 연합된 조합과제를 20회 연습하게 되었다(블럭③). 이렇게 블럭 세 개를 수행하면서 검사를 이해한 다음 실전과제 41시행을 수행하도록 구성하였다(블럭④). 첫 번째 실전과제가 끝나면 참여자들은 자기와 파트너의 위치가 바뀐 과제를 20회 변별하였고(블럭⑤), 위치가 바뀐 상태로 긍정단어 및

- 1) 표적으로 ‘상대방’ 대신 ‘파트너’를 사용한 이유는 ‘상대’나 ‘상대방’은 대립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며, ‘짝’이나 ‘짝꿍’은 우리성을 상당히 내포하지만, ‘파트너’는 외래어로 다른 표현들에 비해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파트너’ 역시 우리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파트너’가 갖는 우리성의 효과는 1차 IAT검사와 2차 IAT검사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1차 IAT검사와 2차 IAT검사를 비교 분석하여 제외시켰다.

블럭①	블럭②	블럭③	블럭④	블럭⑤	블럭⑥	블럭⑦
특성변별	표적변별	조합과제 연습	조합과제 실전	역표적변별	역조합과제 연습	역조합과제 실전
긍정* *부정	자기* *파트너	자기* 긍정* *파트너 *부정	자기* 긍정* *파트너 *부정	*자기 파트너*	*자기 *부정 파트너* 긍정*	*자기 *부정 파트너* 긍정*
20시행	20시행	20시행	41시행	20시행	20시행	41시행

그림 2. 자기와 파트너를 대응시킨 암묵적 연합검사의 절차
(전체 7블럭 182시행으로 구성. * 표시는 반응 방향)



그림 3. 자기와 파트너를 대응시킨 암묵적 연합검사 실행화면
(왼쪽은 블럭④로 양립조건에서 오반응 표시, 오른쪽은 블럭⑦로 비양립조건)

부정단어와 연합된 조합과제를 20회 연습한 다음(블럭⑥), 위치가 바뀐 두 번째 실전과제 41시행²⁾을 수행하였다(블럭⑦).

그림 3의 왼쪽에 실행화면으로 제시된 블럭④는 자신-긍정, 상대방-부정 조건이기 때문에 변별하기 편하고 쉬운 양립조건이다. 그러나 오른쪽에 제시된 블럭⑦은 자신-부정, 상대방-긍정 조건이기 때문에 변별하기 불편하고 어려운 비양립조건이다. 순서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홀수 참여자에게는 양립조건이 먼저 제시되고 짝수

참여자에게는 비양립조건이 먼저 제시되도록 1차 IAT검사를 제작하였다. 1차 IAT검사와 조건 제시순서가 반대인 2차 IAT검사를 제작하여 점화 이후에 다른 순서로 측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검사는 실험참여자가 글자판의 ‘Z키’, ‘?키’, ‘space bar’만을 사용하여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참여자는 부정단어 및 부정단어와 연합된 표적이 나오면 ‘Z키’, 긍정단어 및 긍정단어와 연합된 표적이 나오면 ‘?키’를 눌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space bar’는 일련의 반응을 마치고, 다음시행으로 넘어갈 때 누르도록 지시문을 작성하였다. 한편, 변별작업 도중 틀린 반응이 나오면 그림 3의 왼쪽 실행화면과 같이 자극단어 아래에 빨간색으로 ‘X’가 표시되면서 화면이 정지되었다. 이 상태에서 맞는 반응을 하면

2) 실전과제를 41시행으로 제작한 이유는 지시문을 확인한 다음 1차 시행으로 넘어가면서 반응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긍정·부정 단어를 1시행 추가하여 21시행을 수행하고, 표적인 자기와 파트너는 그대로 20시행을 수행하도록 만들었다. 분석에서는 1차 시행을 제외한 긍정·부정 단어 20시행이 사용되었다.

다음 시행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었고, 참여자에게는 지시문을 통해 안내하였다.

실험 절차

소집단(4~8명)으로 편성된 참여자들이 실험실에 도착하면, 정해진 컴퓨터 앞으로 안내하였다. 참여자들은 전공이 다른 참여자들과 2명씩 약 80cm 간격으로 나란히 앉게 되었고, 검사를 편히 수행할 수 있게 모니터와 글자판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참여자에게 단어자극의 분류시간을 알아보는 실험이며 2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알려 주고, 실험 중에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놓도록 지시하였다.

참여자에게 번호를 안내한 다음 '1차 IAT검사'를 실행하여 지시문에 따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1차 IAT검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2분 동안 휴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휴식이 끝나면 실험자는 각 점화조건에 배정된 소집단의 참여자들에게 점화과제를 배부하였다. 실험이 소집단 단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참여한 사람들은 동일한 점화과제를 받았다. 실험자는 과제를 설명하고서 내용을 기록하도록 지시한 다음 정확히 3분 뒤에 기록을 중지시키고 바로 2차 IAT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마지막 참여자가 검사를 모두 마친 후 손을 들어 표시하면, IAT와 점화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실험을 마무리하였다.

자료 변환 및 분석 방법

한 검사당 실전과제는 80시행이므로 2개 검사의 160개 반응이 분석되었다. 실험에 불성실하게 임하여 오반응이 전체 반응의 10%를 초과한 7명(남자 3명, 여자 4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국 개별성 점화조건 참여자 22명(남자 11명, 여자 11명)과 우리성 점화조건 참여자 21명(남자 7명, 여자 14명)의 반응시간 6,880개(160 * 43)를 분석하였다.

극단값들은 Greenwald 등(1998)의 처리 방법에 따라 300ms 미만인 반응시간은 300ms로, 3,000ms를 초과한 반응시간은 3,000ms로 변환하였다. 극단값이 전체 반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3% (극단값 9개 ÷ 전체반응 6,880개)에 불과하였다. 극단값 처리 후 Greenwald, Nosek, 및 Banaji(2003)의 계산 규칙에 따라 오반응은 각 검사의 정확반응 평균시간에 600ms를 더하여 계산한 후 재입력하였다. 연구 1에서 평균 오반응은 1차 IAT검사에서 4.09개로 전체 반응 중 5.1%, 2차 IAT검사에서는 2.86개로 전체 반응 중 3.6%에 해당하였다.

검사별 반응시간들은 자신에 대한 태도와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독립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양립조건은 자신에 대한 긍정반응 20개와 상대방에 대한 부정반응 20개로, 비양립조건은 자신에 대한 부정반응 20개와 상대방에 대한 긍정반응 20개로 분리하여 평균을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자신에 대한 IAT효과(자신부정 평균반응시간 - 자신긍정 평균반응시간)와 상대방에 대한 IAT효과(상대부정 평균반응시간 - 상대긍정 평균반응시간)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1차 IAT검사의 IAT효과를 전체반응 80개의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자신에 대한 표준 D값과 상대방에 대한 표준 D값으로 변환하였다. 2차 IAT검사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 표준 D값과 상대 표준 D값으로 변환하였다(Greenwald et al., 2003). 상대방에 대한 IAT효과와 표준 D값은 음수가 커질수록 거리감이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자신 및 상대방에 대한 긍정반응과 부정반응의 변화도 알아보기 위해 대상별 긍정 평균반응시간과 부정 평균반응시간을 각 검사의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대상별 긍정 표준 D값과 부정 표준 D값으로 변환하였다.

개별성 및 우리성의 점화효과와 대상별 긍정반응과 부정반응의 변화는 1차 IAT 검사결과와 2차 IAT 검사결과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고, 자신 및 상대방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점화조건(집단 간: 개별성, 우리성)과 반복측정(집단 내: 1차 IAT검사, 2차 IAT검사)의 상호작용효

과는 반복측정 변량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결 과

조작 효과 분석

참여자들이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개별성과 우리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연상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점화과제에 기록된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개별성 조건에서 참여자 22명은 총 83개의 내용(평균 3.8개)을 기록하였고, ‘자유로움’과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 등 개별성에 관련된 내용이 73개(88%), ‘앞서가다’나 ‘쟁취하다’와 같이 경쟁에 해당하는 내용이 7개(8.4%), 기타 내용은 3개(3.6%)가 있었다. 이 조건의 모든 참여자들이 개별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점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우리성 조건에서 참여자 21명은 총 128개의 내용(평균 6개)을 기록하였다. 그 중 ‘사랑’과 ‘편안함’ 등 우리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119개(93%), ‘능력의 상승’과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함’ 등 협력과 관련된 내용은 6개(4.7%), 기타 내용은 3개(2.3%)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우리성에 대한 내용을 연상하였음을 보여 준다.

점화 효과 분석

자신에 대한 IAT효과는 자신에 대한 긍정평

가 반응시간과 부정평가 반응시간의 차이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를 자존감 IAT효과로 볼 수 있다(Rosenberg, 1962). 상대방에 대한 IAT효과는 상대방에 대한 긍정평가 반응시간과 부정평가 반응시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IAT에서 표적으로 자신과 상대방이 대응될 경우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며, 주 반응양상은 상대방과 긍정단어가 연합된 조건에서 응답이 지연되는 방향으로 나타나므로 거리감 IAT효과로 볼 수 있다(배재창 등, 2004; Fazio et al., 1995). 점화 조건별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IAT효과를 해당 검사별 표준편차로 나눠서 자신에 대한 표준 D값(이하 자신 D값)과 상대방에 대한 표준 D값(이하 상대 D값)을 산출하여 표 1에 정리하였다.

개별성 점화조건에서 자신 D값이 점화 전 .286($SD = .439$)에서 점화 후 .296($SD = .288$)으로 차이가 없었다. 상대 D값은 점화 전 -.300($SD = .455$)에서 점화 후 -.407($SD = .379$)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림 4에서 개별성이 점화된 다음 상대 D값의 음수가 조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성 점화조건에서는 자신 D값이 점화 전 .345($SD = .449$)에서 점화 후 .292($SD = .533$)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상대 D값은 점화 전 -.297($SD = .424$)에서 점화 후 -.101($SD = .557$)로 유의수준에 가깝게 증가하였다, $t(20) = -1.859, p = .078$. 상대방에 대한 태도변화가 긍정과 부정 중 어떤 반응에서 나타났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대부정 평균과 상대긍정 평균을 검사별 전체 표준편차로 나눈 표준 D값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성 점화 이후 상대부정 D값은 그림 5와 같이 점화 전에 비해 의미

표 1. 점화조건별 자신 및 상대 표준 D값 평균의 변화

구 분	자신 D값			상대 D값		
	점화 전	점화 후	변화량	점화 전	점화 후	변화량
개별성	.286(.439)	.296(.288)	+0.010	-.300(.455)	-.407(.379)	-0.107
우리성	.345(.449)	.292(.533)	-.053	-.297(.424)	-.101(.557)	+0.196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임. 개별성은 22명, 우리성은 21명 자료이며 표준 D값은 음수가 커질수록 부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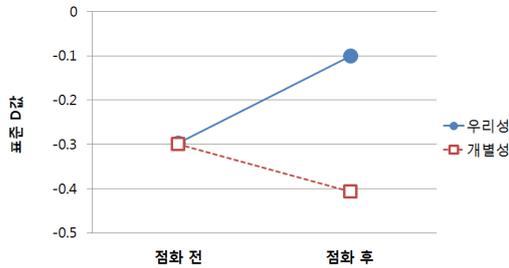


그림 4. 개별성과 우리성 점화 이후 상대 D값의 변화(연구 1)
(상대 D값은 상대방에 대한 태도로 양수의 증가는 호감 증가, 음수의 증가는 거리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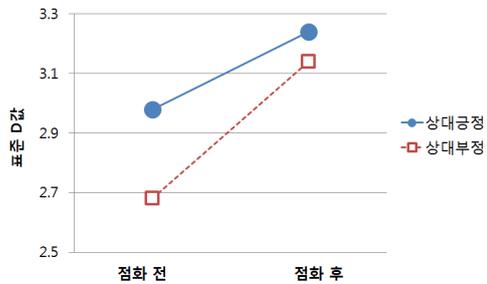


그림 5. 우리성 점화 이후 상대긍정 D값과 상대부정 D값의 변화
(표준 D값은 상대긍정 및 상대부정 반응평균을 검사별 전체 표준편차로 나눈 값, 클수록 반응이 느림)

있게 증가하였다, $t(20) = -2.134, p < .05$. 이러한 결과는 우리성 점화 후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감소했다는 의미이다.

개별성과 우리성이 환기되었을 때 점화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대 D값에 대한 점화조건(집단 간: 개별성, 우리성)과 반복측정(집단 내: 점화 전, 점화 후)의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상대 D값에 대한 점화조건과 반복측정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41) = 5.02, p < .05$. 그림 4를 살펴보면 우리성이 점화되었을 때 거리감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개별성을 점화한 이후에는 거리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격차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점화조건의 주

효과와 반복측정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개별성을 점화하였을 때 자신에 대한 평가는 고양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1차 IAT검사와 2차 IAT검사에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별성 점화 시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을 기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공이 달라서 잘 모르는 상대방과 아무런 교류가 없었던 상황에서 검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별성 점화 이전부터 상대방을 개별성 관계에서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성을 점화하였을 때, 자신에 대한 평가는 개별성 점화조건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점화를 전후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긍정적인 태도가 조금 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점화 이후에 상대부정 반응이 유의미하게 느려졌는데, 이는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저항이 커졌음을 의미하며, 자신이 좋아하거나 추구하는 대상이 부정정서와 연합된 조건에서 강한 저항을 보였던 기존 연구들과 유사한 양상이다(Ferguson & Bargh, 2004; Fishbach & Shah, 2006). 이를 통해 우리성 점화 이후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성 점화가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연구가설 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림 4에서 확인한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은 우리성이 점화되었을 때 개별성 점화조건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개별성이 점화되었을 때는 우리성이 점화되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래서 점화조건과 반복측정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성 점화조건에서 상대방을 덜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고, 개별성 점화조건에서는 상대방과 거리를 두게 되어, 점화조건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이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개별성과 우리성의 점화 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 3은 지지되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는 상황에서 개별성과 우리성 중 어떤 관계가 부각되느냐에 따라 대인평가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으며, 개별성과 우리성의 점화는 대인평가에 있어 상반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대방에 대한 평가와 달리 자신에 대한 평가는 우리성 혹은 개별성이 점화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자신에 대한 평가는 상황이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존감을 내세우고 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개별성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개별성의 점화에 의한 자존감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개별성 관계의 특징으로 자기중심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는 상황에서 이미 개별성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점화 전 검사부터 자기고양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성 점화조건에서도 자존감은 점화되기 전부터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성이 점화된 이후에도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조건과는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Taylor & Brown, 1988).

실험에서 사용한 IAT는 자신과 상대방을 대응시켰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반응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존재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IAT로 측정된 자신에 대한 태도는 절대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다(Bluemke & Friese, 2008; Karpinski & Steinman, 2006). 예컨대 어머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자신과 어머니가 대응된 IAT를 수행하게 되면, 자신과 어머니를 비교하여 자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머니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신과 상대방이 대응된 실험 상황은 사회비교 상황과 유사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존감이 낮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고양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Rosenberg, Schooler, & Schoenbach, 1989; White & Lehman, 2005). 이 실험의 모든 조건에서 상대방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인 측정치가 갖는 문제로 인해 참여자들이 실제로 상대방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IAT의 대응구조가 갖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 표적을 분리하여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신희천, 한소영, 양옥석, 2009; Bluemke & Friese, 2008; Karpinski & Steinman, 2006), 한 대상씩 독립적으로 평가하거나(Nosek & Banaji, 2001), 표적 대신 빈칸(blank)이나 나무처럼 중성적 범주를 대응시키는 방법 등이 시도되었다(Czopp, Monteith, Zimmerman, & Lynam, 2004; Kim,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도 자신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독립적으로 측정하고자 두 번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2

연구 1에서는 IAT의 전형적인 형태로 자신과 상대방을 대응시킨 상황에서 반응측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 2에서는 ‘파트너’가 유일한 표적인 ST-IAT를 제작하였다. 연구 1과 동일한 점화과제와 실험절차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개별성과 우리성 점화 이후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비교해보았다.

대상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를 다른 표적대상에 의해 영향 받지 않도록 측정하고자 했던 심리학자들은 ST-IAT(Single Target IAT, Bluemke & Friese, 2008), SC-IAT(Single Category IAT, Karpinski & Steinman, 2006) 등 다양한 검사들

을 개발하였다. Wigboldus, Holland와 van Knippenberg(2004)는 IAT를 바탕으로 하지만 표적을 하나로 줄인 ST-IAT를 제작하였다(Friese, Bluemke, & Wänke, 2007에서 재인용). IAT에서는 좌우 반응비율이 균형을 이루었지만 ST-IAT에서는 표적의 반응방향으로 자극이 편포되었다.

Karpinski와 Steinman(2006)은 ST-IAT가 갖는 좌우편향을 해결하기 위해 반응비율을 조정된 SC-IAT를 만들었다. ST-IAT에서 표적, 긍정단어, 부정단어가 각각 5 : 5 : 5의 비율로 제시되었다면, SC-IAT에서는 표적과 연합되지 않은 반대쪽 특성단어의 비율을 7로 증가시켜 긍정조건은 5(표적) : 5(긍정) : 7(부정), 부정조건은 7(긍정) : 5(부정) : 5(표적)로 균형을 맞춘 것이다. 그리하여 ST-IAT에서 2:1과 1:2였던 좌우 반응비율이 SC-IAT에서는 10:7과 7:10으로 개선되었다.

연구 1에서 IAT를 사용했던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검사방법이나 자료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ST-IAT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ST-IAT는 반응이 편향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SC-IAT와 같이 반응비율을 조정하였다. 새로운 검사로 밝히고자 했던 가설은 연구 1과 같다.

방 법

실험 참여자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52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여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12명(23.1%), 여자 40명(76.9%)이었다. 참여자들은 실험에 참여하는 보상으로 가산점을 받았으며, 집단으로 실험이 가능한 PC실에서 2명씩 나란히 짝을 이루어 참여하였다.

실험 설계

실험은 점화조건(집단 간: 개별성, 우리성)과

반복측정(집단 내: 점화 전 1차 IAT검사, 점화 후 2차 IAT검사)으로 구성된 2X2 혼합 요인 설계로 연구 1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개별성 점화조건에 26명(남자 7명, 여자 19명), 우리성 점화조건에 26명(남자 5명, 여자 21명)이 참여하였는데 실험에 참여한 순서가 홀수 번째인 참여자 집단은 개별성, 짝수 번째인 참여자 집단은 우리성 점화조건으로 배정되었다.

단일표적 암묵적 연합검사(ST-IAT)

연구 1과 동일한 긍정·부정 특성단어와 ‘파트너’를 단일 표적으로 포함하는 ST-IAT를 제작하였다. 반응방향의 좌우편포를 해결하고자 자극별 반응비율은 7:7:10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방 긍정조건은 7(파트너):7(긍정):10(부정), 상대방 부정조건은 10(긍정):7(부정):7(파트너)로 균형을 맞추었다(Karpinski & Steinman, 2006). 연습시행은 7:7:10 비율을 한 회기로 24시행, 실전과제는 두 회기 48시행으로 구성하였다.

검사 절차는 그림 6과 같았다. 참여자들은 긍정단어와 부정단어를 20회 변별하고(블럭①), 긍정단어와 부정단어에 파트너가 한쪽에만 추가된 연습시행을 24회 변별한 다음(블럭②), 동일한 조건의 실전과제 48시행을 수행토록 구성했다(블럭③). 첫 번째 실전과제가 끝나면 참여자들은 파트너의 위치가 반대로 바뀐 연습시행을 24회 변별하였고(블럭④), 마지막으로 위치가 바뀐 두 번째 실전과제 48시행을 수행하였다(블럭⑤).

그림 7의 왼쪽에 실행화면으로 제시된 블럭③은 파트너가 부정단어와 연합된 반면, 오른쪽에 제시된 블럭⑤는 파트너가 긍정단어와 연합된 조건이다. 순서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홀수 참여자에게는 파트너-부정 조건이 먼저 제시되고 짝수 참여자에게는 파트너-긍정 조건이 먼저 제시되도록 1차 IAT검사를 제작하였고, 2차 IAT검사에서는 제시순서가 바뀌었다.

블럭①	블럭②	블럭③	블럭④	블럭⑤
특성변별	조합과제 연습	조합과제 실전	역조합과제 연습	역조합과제 실전
긍정* *부정	긍정* *부정 *파트너	긍정* *부정 *파트너	파트너* 긍정* *부정	파트너* 긍정* *부정
20시행	24시행	48시행	24시행	48시행

그림 6. 파트너를 단일표적으로 하는 암묵적 연합검사의 절차
(전체 5블럭 164시행으로 구성. * 표시는 반응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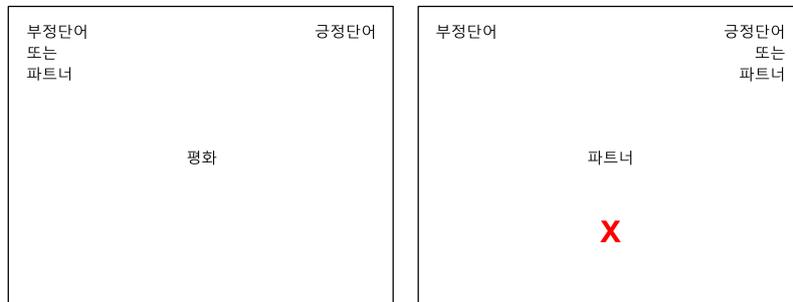


그림 7. 파트너에 대한 단일표적 암묵적 연합검사 실행하면
(왼쪽은 블럭③ 파트너+부정조건, 오른쪽은 블럭⑤ 파트너+긍정조건에서 오반응 표시)

자료 변환 및 분석 방법

한 검사당 실전과제는 96시행이었지만 ST-IAT에서는 표적과 연합되지 않은 특성단어는 분석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56시행만 분석하면 된다. 그런데 검사가 2개이므로 112개 반응을 분석하였다. 실험에 불성실하게 임하여 오반응이 전체 반응의 10%를 초과한 7명(남자 2명, 여자 5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국 개별성 점화조건 참여자 22명(남자 6명, 여자 16명)과 우리성 점화조건 참여자 23명(남자 4명, 여자 19명)의 반응시간 5040개(112 * 45)를 분석하였다.

극단값(300ms 미만, 3,000ms 초과)과 오반응은 연구 1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환하였다. 300ms 미만인 반응은 10개, 3,000ms 초과한 반응은 1개만 있었다. 연구 2에서 평균 오반응은 1차 IAT

검사에서 1.75개로 전체 반응 중 3.1%를 차지했고, 2차 IAT검사에서는 1.47개로 전체 반응 중 2.6%에 해당하였다.

검사별 반응 중에서 표적인 파트너와 연합되지 않은 반응을 제거한 후 파트너-긍정조건에서 28개 반응과 파트너-부정조건에서 28개 반응을 분리하여 평균을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상대 IAT효과(파트너부정 평균반응시간 - 파트너긍정 평균반응시간)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1차 IAT검사의 IAT효과를 전체반응 56개의 표준편차로 나누어서 상대 D값으로 변환하였다. 2차 IAT검사도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 D값을 변환하였다. 본 검사에서도 상대 IAT효과와 상대 D값은 음수가 커질수록 거리감이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상대방에 대한 긍정반응과 부정반응의 변화도 알아보기 위해 긍정반응시간 평균과 부정반응시간 평균을 표준편차로 나누어 긍정

표준 D값과 부정 표준 D값으로 변환하였다 (Greenwald et al., 2003).

결 과

조작 효과 분석

개별성 조건에서 참여자 22명은 총 97개의 내용(평균 4.4개)을 기록하였고, ‘개성 있는 사고 방식’과 ‘혼자여서 편하다’ 등 개별성에 관련된 내용이 88개(90.7%), ‘앞서가다’나 ‘경쟁하다’와 같이 경쟁에 해당하는 내용이 5개(5.2%), 기타 내용은 4개(4.1%)가 있었다. 연구 1과 마찬가지로 모든 참여자들이 개별성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우리성 조건에서 참여자 23명은 총 121개의 내용(평균 5.3개)을 기록하였다. 그 중 ‘행복한 일을 공유한다’와 ‘다정함’ 등 우리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109개(90%), ‘일처리가 빠름’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협동’ 등 협력과 관련된 내용은 3개(2.5%), 기타 내용은 9개(7.5%)였다. 이같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우리성에 대한 내용을 연상하고 있었다.

점화 효과 분석

개별성과 우리성 점화를 전후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참여자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대부정 반응과 상대긍정 반응의 평균을 감산하여 IAT효과를 산출하였다. 상대 IAT효과를 해당 검사별 표준편차로 나눠서 상대 D값을 산출하였다. 표 2에는 각 점화조건별 상대 D값이 나와 있다.

조건별 점화효과를 살펴보면, 개별성 점화조건에서 상대 D값은 점화 전 .066($SD = .284$)에서 점화 후 $-.111$ ($SD = .351$)로 유의미 수준에 가깝게 감소하였다, $t(21) = 1.760, p = .093$. 그림 8에서 개별성이 점화된 다음 상대 D값이 조금 하

표 2. 점화조건별 상대 D값 평균의 변화

구 분	상대 D값		
	점화 전	점화 후	변화량
개별성	.066(.284)	-.111(.351)	-.177
우리성	.030(.439)	.181(.308)	+.151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 개별성 22명, 우리성 23명 자료로 상대 D값은 음수가 클수록 거리감이 증가

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성 점화 이후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약한 긍정에서 약한 부정으로 조금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성 점화조건에서는 상대 D값이 점화 전 $.030$ ($SD = .439$)에서 점화 후 $.181$ ($SD = .308$)로 $.151$ 이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t(22) = -1.485, p = .152$. 그림 8에서 우리성 점화 후 상대 D값이 완만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개별성과 우리성이 점화되었을 때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각기 다른 양상으로 바뀌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대 D값에 대한 점화조건(집단 간: 개별성, 우리성)과 반복측정(집단 내: 점화 전, 점화 후)의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상대 D값에 대한 점화조건과 반복측정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43) = 5.252, p < .05$. 그러나 점화조건의 주효과와 반복측정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두 조건에서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점화 이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점화 이후에는 상반된 점화효과로 인해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점화 이후 긍정·부정 반응별 변화를 추가로 살펴본 결과, 개별성 점화조건에서 상대긍정 D값은 점화 전 3.01에서 점화 후 3.48로 유의미 수준에 근접하게 증가하였다, $t(21) = -1.938, p = .066$. 반면, 우리성 점화조건에서는 상대부정 D값이 점화 전 3.14에서 점화 후 3.50으로 유의미 수준에 가깝게 증가하였다, $t(22) = -1.878, p = .074$.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점화 이후 긍정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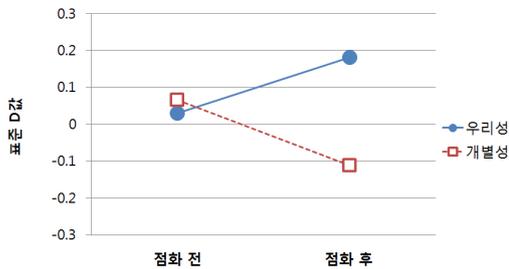


그림 8. 개별성과 우리성 점화 이후 상대 D값의 변화(연구 2)
(상대 D값은 상대방에 대한 태도로 양수의 증가는 호감 증가, 음수의 증가는 거리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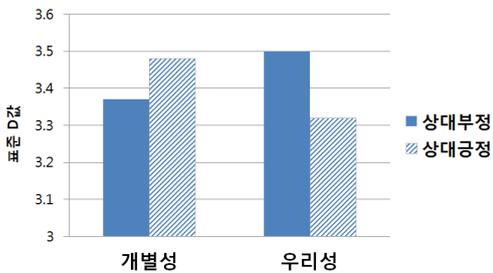


그림 9. 개별성과 우리성 점화 이후 상대부정 D값과 상대긍정 D값의 차이
(개별성 점화 후 상대긍정 반응이 지연된 반면, 우리성 점화 후에는 상대부정 반응이 지연)

및 부정반응과 점화조건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1, 43) = 8.775, p < .01$. 그림 9를 통해 개별성과 우리성이 점화된 후 상대방에 대한 긍정반응과 부정반응이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논 의

대인평가에 있어 자신에 대한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개별성 혹은 우리성의 점화가 상대방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연구 2의 목적이었다.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대상에 대한

절대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ST-IAT를 사용하였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마주한 상황에서 IAT를 사용한 연구 1의 경우, 상대방과 대응된 자신의 영향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연구 2에서 표적으로 상대방만을 제시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태도는 미약하지만 긍정적으로 나왔다.

점화 이전 상태에서 상대방을 조금 긍정적(상대 D값이 .066)으로 여겼던 참여자들은 개별성이 점화된 이후 상대 D값이 감소하면서 거리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거리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는 개별성 점화 시 거리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을 기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리감이 유의미 수준에 근접하게 증가하였고, 상대방-긍정 반응이 유의미 수준에 가깝게 지연되었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참여자들은 자신이 싫어하거나 목표추구를 방해하는 대상이 긍정정서와 연합된 조건에서 매우 지연된 반응을 보였다(배재창 등, 2004; Fazio et al., 1995; Fishbach & Shah, 2006). 연구 1에서는 개별성 점화 이후에 이러한 변화양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거리감의 증가도 본 연구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ST-IAT가 IAT보다 개별성의 점화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더욱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이 이미 생소한 사람과 마주하는 상황에서 진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개별성의 점화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상대방과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점화 이전 중립에 가까웠는데, 우리성이 점화된 후 상대 D값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하였다. D값을 분석해본 결과 점화를 전후로 차이는 의미가 없었으므로 우리성 점화 시 거리감의 감소를 예상한 연구가설 2는 기각되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유의미 수준에 가깝게 증가하였고, 개별성 점화조건과는 반대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 유의수준에 가까운 저항을 보였다. 이는 연구 1의 결과와 부

합하는 것으로 우리성의 점화는 상대방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개별성과 우리성의 점화효과가 상반되는 방향으로 상대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유의미한 수준의 상호작용효과로 확인되었다(그림 8). 즉, 개별성 점화조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이 우리성 점화조건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우리성 점화조건에서는 개별성이 점화되었을 때보다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가설 3은 지지되었으며, 개별성과 우리성의 점화효과가 차별화되어 나타났던 연구 1의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그렇지만 점화 후에도 D값이 모두 음수였던 연구 1과 달리, 연구 2에서는 음수(개별성)와 양수(우리성)로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아울러 각 조건에서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점화 이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점화 이후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교류상황에서 어떤 관계가 부각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ST-IAT를 사용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날 경우 상대방을 싫어하기보다는 조금 좋아하거나 중립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성이 환기되는 상황에서 개별성이 환기되는 상황보다 상대방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ST-IAT를 통해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태도가 측정 가능했기 때문에 도출될 수 있었다.

종합 논의

대인교류에서 우리성이 환기되어 작용하는 경우와 개별성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 매력, 도덕적 판단, 도움행위, 동조행위, 흉내내기 등이 달리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허태균 등, 2002; Clark & Mills, 1979; Gollwitzer et al., 1990;

Hogg & Turner, 1987; Oyserman & Lee, 2008).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조사에 의존하거나, 실험적 연구의 경우에 집단 간 설계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집단차이를 보이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명시적 측정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집단 내 설계방법을 이용하여, 인과성을 확연히 드러내 보고자 하였으며, 명시적 측정이 아닌 암묵적 측정법을 사용하여 우리성과 개별성의 점화가 상응하는 심리의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자신과 상대방이 대응된 IAT를 사용한 결과, 점화 전 낯선 이들과 만난 중립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개별성을 점화시킨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은 증가하지 않았다. 한편 우리성을 점화시킨 상황에서는 자신에 대한 선호에 증감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은 유의미 수준에 가깝게 감소하였고, 특히 상대를 부정적인 것과 연합시키는 반응에서 저항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자신과 상대방이 대응된 상황에서 우리성과 개별성의 점화가 자신에 대한 평가보다 상대방에 대한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인교류에서 우리성이 환기된 경우 사람들은 상대방을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됨을 볼 수 있었다.

연구 2에서는 자신에 대한 태도에 영향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평가만 측정할 수 있는 ST-IAT를 제작하여 점화효과를 분석하였다. 점화 전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상대적 평가법을 사용한 연구 1의 결과와는 상이한 것이다. 이 결과로 볼 때, 사람들은 상대방을 잘 모르긴 하지만 함께 실험에 참여하는 학생이기에 중립에 가까운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중립적 태도는 개별성 점화 이후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의 증가로 바뀌었고, 우리성 점화 이후에는 상대방에 대한 선호가 유의수준에 가깝게 증가하여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다.

개별성 및 우리성의 점화를 전후로 한 상호작용효과는 두 연구에서 모두 예상한대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대인평가에서 개별성의 부정적인 효과와 우리성의 긍정적인 효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점화 전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상황에서 환기되는 관계적 속성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향방이 좌우되며,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사람들은 개별성이 점화된 조건보다 우리성이 점화된 조건에서 상대방을 더욱 선호하였다. 앞서 개별성 혹은 우리성의 점화에 따른 사회적 행위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개별성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앉거나(Holland et al., 2004), 구별되는 행위를 보였다(Lalwani & Shavitt, 2009). 하지만 우리성이 활성화되면 남을 배려하고 동조하는 양상이 나타났다(Iyengar & Lepper, 1999).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이러한 행위 이전에 정서적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암묵적 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암묵적 연합검사에서 대상에 대한 태도는 대상-부정 조건 반응시간과 대상-긍정 조건 반응시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각 조건의 반응시간은 중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백인들은 흑인-긍정 조건에서 반응이 매우 지연되었고(Fazio et al., 1995), 민주화 운동이 점화된 상태에서 광주 학생들의 대구-긍정 반응 시간은 매우 느려졌다(배재창 등, 2004). 아울러 운동선수들은 자기종목-부정 반응시간이 지체 되었으며(Ferguson & Bargh, 2004), 체중 감량 중인 사람들은 운동-부정 조건에서 지연된 반응을 보였다(Fishbach & Shah, 2006).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사람들은 편견이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 부정반응이 빨라지진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 저항을 보인 반면, 좋아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조건에서 저항이 나타나고 긍정반응이 빨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성이 점화되면 상대방-긍정 조건의 반응시간이 지연되는 즉, 싫어하는 대상에 대한 반응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우리성이 점화된 경우에는 상대방-부정 조건에서 지연된 반응을 보이는, 즉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반응이 나타났다. 이런 암묵적 반응결과는 내집단 선호 현상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 중요한 증거를 제시한다. 즉 내집단 성원에 대하여 보이는 호감은 외집단 성원에 대한 반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다(Brewer, 1999). 본 연구는 우리성을 점화하여 내집단화된 상대방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저항을 보이지만, 개별성이 점화되어 외집단화된 상대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데 저항이 나타나면서, 내외집단 구분에 따라 대인평가 내용이 다르고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우리성이 점화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사랑’, ‘편안함’, ‘다정함’, ‘행복’ 등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긍정적인 정서들을 주로 떠올리고 있었다. 우리성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정서를 교환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최상진, 박수현, 1990; House, 1981, pp.336-350). 또한 참여자들은 우리성 관계의 장점(평균 5.7개)을 개별성 관계의 장점(평균 4.1개)보다 많이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개별성 관계보다 우리성 관계에서 장점을 더 쉽고 편안하게 떠올릴 수 있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들이 평소에 우리성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개별성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었다면, 우리성 자극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개별성 자극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 따라서 점화자극 자체가 갖는 정서가로 인한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개별성이 점화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자유로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다’, 및 ‘혼자여서 편하다’와 같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내용들을 연상하고 있었다. 한편으로 이 내용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두 조건의 점화과정에 기록

된 내용들을 볼 때 참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과의 관계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서 대인관계에서 우리성이 점화되면 상대방을 정서적으로 더 가깝게 여기지만, 개별성이 점화되면 더 멀게 느끼게 된다는 점을 암묵적 방법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발견은 상대방과 마주하는 상황에서 우리성과 개별성 중 어떤 측면이 부각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매우 역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한규석, 최상진, 2008). 예컨대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성이 부각될수록 친구에 대한 선호는 증가할 테지만 개별성이 부각된다면 친구에 대한 선호는 감소하거나 중립적으로 변화되는 역동을 예상할 수 있다. 최상진(2000, 2011)은 한국인의 심리적 특징에 대한 오랜 연구를 정리하면서 우리성, 심정, 정 등을 한국인 이해를 위한 핵심어로 제시하였다. 그는 우리성의 사회적 표상에 대한 비교문화적 분석연구(최상진, 박수현, 1990)에서 우리성이 촉발되는 경우에 한국인들은 편안함, 동질감, 개성의 함몰 현상을 보이는 점에서 캐나다인과 차이점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우리성 논의(최상진, 2011, pp. 23-25; 한규석, 최상진, 2008)에 대한 행동적 인지적 증거에 더하여 정서적 차원의 지지적 증거를 암묵적 측정 수준에서 보여 주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암묵적 연합검사를 사용함으로써 각 검사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연구 목적에 따라 어떤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두 대상이 대응되는 전통적인 IAT는 대상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각 대상에 대한 태도를 모두 살펴 보거나 비교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에게 삶과 죽음이 대응된 IAT를 사용하여 각각을 어떻게 여기는지 살펴 보거나, 무엇을 더욱 선호하는지 살펴 볼 수 있었고(Nock et al., 2010), 음식과 운동을 대응시

킨 경우 비만 환자나 체중감량 중인 사람들이 각 대상을 얼마나 추구하고, 더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Fishbach & Shah, 2006). 그러나 측정대상이 하나인 상황에서는 대상들끼리 영향을 미치는 IAT 대신 ST-IAT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예컨대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 보거나(Bluemke & Friese, 2008), 사람을 정서적으로 평가하는 상황에서 ST-IAT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태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신희천 등, 2009).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점화조건의 차이만을 살펴 보았고 통제조건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연구 1에서 관찰한 우리성과 개별성의 차별화된 점화효과가 연구 2에서도 재확인되었지만, 개별적인 점화효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따른다. 후속 연구에서는 통제조건과의 비교를 통해 연습효과를 제외한 점화효과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성을 개별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놓고 각각의 점화효과를 살펴 보았지만 우리성은 관계적 속성과 집단적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Brewer와 Gardner(1996)는 사회적 자기성의 특징을 집단적 자기성과 관계적 자기성으로 세분하여 개인적 자기성과 함께 세 가지 자기성의 특징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개인으로서 주체성이 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개별적 자기성이 활성화되어 자기의 생각, 느낌에 바탕한 판단과 행동을 보인다. 그러나 집단적 자기성 즉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성, 국가, 민족, 학교 등등)이 활성화 되는 상황에서는 집단의 성원들과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들에 바탕하여 판단하고 행동을 보인다. 이 경우에 상대방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같은 집단이라는 인식만으로 상대방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가까움을 느끼는 양상을 보인다(Hogg & Hardie, 1991).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두 대상이 서로 돕거나 함께 어울리는 자극을 제시하였고, 참여자들은 다정한 관계에서의 ‘사랑’, ‘편안함’ 등 우리성의

관계적 속성만을 떠올리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성의 집단적 속성과 관계적 속성 간 차이는 살펴볼 수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집단적 속성을 점화할 경우 대인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여 관계적 속성과의 차이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민정, 현명호 (2010).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자존감과 남성 화병 증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9-33.
- 김정식, 송유진, 이성수 (2008). 문화점화가 자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77-193.
- 나은영, 권준모 (2002). 암묵적 연합 검사에 의한 지역 편견의 강도 측정 및 응용: 사투리 음성자극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51-74.
- 박정열, 허태균 (2006). 인상형성에 있어 사회범주 정보(우리-남)와 성격특성 정보(따뜻한-차가운)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4), 55-75.
- 배재창, 안상수, 한규석 (2004). 암묵적 연합검사를 통한 지역정체감 연구: 광주 사례.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41-49.
- 신희천, 한소영, 양옥석 (2009). IAT를 이용한 부모-자녀 관계 만족의 암묵적 측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369-396.
- 안미영 (1998). 대인간 오해에서 자존감의 수준과 자기평가기준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117-135.
- 안상수, 김혜숙 (2003). 내·외집단 규범정보가 양성평등정책 및 내현적 성편견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51-75.
- 윤혜영, 권정혜 (2011). 사회불안장애 환자의 주의편향 및 암묵적 자존감. *한국심리학회지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p. 336.
- 이은경, 서은국, Chu, T., Kim, H. S., & Sherma, D. K. (2009). 정서억제와 주관적 안녕감: 문화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31-146.
- 최봉영 (2012). 한국인에게 나는 누구인가. 경기도 파주: 지식산업사.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2011).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최상진, 박수현 (1990). 우리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pp. 69-78.
- 한규석, 최상진 (2008). 마음의 연구와 심리학: 마음의 문화심리적 분석에 바탕한 심리의 작용 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2), 281-307.
- 허태균, 박정열, 최상진 (2002). 호오(好惡)/화친(和親)차원 인상형성에 있어 집단정보(우리-남)와 중심특질(따뜻한-차가운)의 점화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pp. 738-743.
- Agnew, C. R., van Lange, P. A., Rusbult, C. E., & Langston, C. A. (1998). Cognitive interdependence: Commitment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4), 939-954.
- Anderson, C., Kraus, M. W., Galinsky, A. D., & Keltner, D. (2012). The Local-Ladder Effect: Social Statu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23(7), 764-771.
- Aron, A., Aron, E. N., Tudor, M., & Nelson, G. (1991). Close relationships as including other in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2), 241-253.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 Bulletin*, 117(3), 497-529.
- Bluemke, M., & Friese, M. (2008).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ingle-Target IAT (ST-IAT): Assessing automatic affect towards multiple attitude objec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8, 977-997.
- Bosson, J. K., Swann, W. B., Jr., & Pennebaker, J. W. (2000). Stalking the perfect measure of implicit self-esteem: The blind men and the elepha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4), 631-643.
- Brewer, M. B. (1999). The psychology of prejudice: Ingroup love or outgroup hate?. *Journal of Social Issues*, 55(3), 429-444.
- Brewer, M. B., & Gardner, W. (1996). Who is this "we"? Levels of collective identity and self repres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83-93.
- Chartrand, T. L., & Bargh, J. A. (1999). The chameleon effect: the perception-behavior link and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6), 893-910.
- Chen, S., Lee-Chai, A. Y., & Bargh, J. A. (2001). Relationship orientation as a moderator of the effects of social pow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2), 173-187.
- Clark, M. S., & Mills, J. (1979). Interpersonal attraction in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 12-24.
- Czopp, A. M., Monteith, M. J., Zimmerman, R. S., & Lynam, D. R. (2004). Implicit attitudes as potential protection from risky sex: Predicting condom use with the IAT.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6(2-3), 227-236.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eMarree, K. G., Wheeler, S. C., & Petty, R. E. (2005). Priming a new identity: self-monitoring moderates the effects of nonself primes on self-judgments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5), 657-671.
- Dovidio, J. F., Kawakami, K., Johnson, C., Johnson, B., & Howard, A. (1997). On the nature of prejudice: Automatic and controlled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5), 510-540.
- Fazio, R. H., Jackson, J. R., Dunton, B. C., & Williams, C. J. (1995). Variability in automatic activation as an unobtrusive measure of racial attitudes: A bona fide pipelin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6), 1013-1027.
- Fazio, R. H., & Olson, M. A. (2003). Implicit measures in social cognition research: Their meaning and u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1), 297-327.
- Ferguson, M. J., & Bargh, J. A. (2004). Liking is for doing: the effects of goal pursuit on automatic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5), 557-572.
- Fishbach, A., & Shah, J. Y. (2006). Self-control in action: Implicit dispositions toward goals and away from temp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820-832.
- Friese, M., Bluemke, M., & Wänke, M. (2007). Predicting voting behavior with implicit attitude measures: The 2002 German parliamentary election. *Experimental Psychology*, 54(4), 247-255.
- Gollwitzer, P. M., Heckhausen, H., & Steller, B. (1990). Deliberative and implemental mind-sets: Cognitive tuning toward congruous thoughts and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6), 1119-1127.
- Greenier, K. D., Kernis, M. H., McNamara, C. W., Waschull, S. B., Berry, A. J., Herlocker, C. E.,

- & Abend, T. A.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ctivity to Daily Events: Examining the Roles of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67(1), 187-208.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 Greenwald, A. G.,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197-216.
- Greenwald, A. G., Poehlman, T. A., Uhlmann, E. L., & Banaji, M. R. (2009).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II. Meta-analysis of predictive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1), 17-41.
- Hogg, M. A., & Hardie, E. A. (1991). Social Attraction, Personal Attraction, and Self-Categorization-, A Field Stud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2), 175-180.
- Hogg, M. A., & Turner, J. C. (1987). Intergroup behaviour, self stereotyping and the salience of social categorie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6(4), 325-340.
- Holland, R. W., Roeder, U. R., van Baaren, R. B., Brandt, A. C., & Hannover, B. (2004). Don't stand so close to me: The effects of self-construal in interpersonal closeness. *Psychological Science*, 15(4), 237-242.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Sydney; Addison-Wesley.
- Iyengar, S. S., & Lepper, M. R. (1999). Rethinking the value of choice: a cultural perspective on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3), 349-366.
- Karpinski, A., & Steinman, R. B. (2006). The Single Category Implicit Association Test as a Measure of Implicit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1), 16-32.
- Kawakami, K., Dovidio, J. F., & Dijksterhuis, A. (2003). Effect of social category priming on personal attitudes. *Psychological Science*, 14(4), 315-319.
- Kawakami, K., Spears, R., & Dovidio, J. F. (2002). Disinhibition of stereotyping: Context, prejudice, and target characteristic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2(4), 517-530.
- Kelley, S., & Mirer, T. W. (1974). The simple act of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2), 572-591.
- Kim, D. Y. (2004). The implicit life satisfaction measur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3), 236-262.
- Kim, H., & Markus, H. R. (1999). Deviance or uniqueness, harmony or conformity? A cultur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4), 785-800.
- Kühnen, U., & Hannover, B. (2000). Assimilation and contrast in social comparisons as a consequence of self-construal activ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6), 799-811.
- Lakin, J. L., & Chartrand, T. L. (2003). Using nonconscious behavioral mimicry to create affiliation and rapport. *Psychological Science*, 14(4), 334-339.
- Lalwani, A. K., & Shavitt, S. (2009). The "me" I claim to be: Cultural self-construal elicits self-presentational goal pursu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1), 88-102.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Nock, M. K., Park, J. M., Finn, C. T., Deliberto, T. L., Dour, H. J., & Banaji, M. R. (2010). Measuring the suicidal mind implicit cognition

- predicts suicidal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21(4), 511-517.
- Nosek, B. A., & Banaji, M. R. (2001). The go/no-go association task. *Social Cognition*, 19(6), 625-666.
- Oyserman, D., & Lee, S. W. (2008). Does culture influence what and how we think? Effects of prim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Bulletin*, 134(2), 311-342.
- Rosenberg, M. (1962). Self-Esteem and Concern With Public Affairs.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26(2), 201-211.
- Rosenberg, M., Schooler, C., & Schoenbach, C. (1989). Self-Esteem and Adolescent Problems: Model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6), 1004-1018.
- Sinclair, S., Lowery, B. S., Hardin, C. D., & Colangelo, A. (2005). Social tuning of automatic racial attitudes: the role of affiliative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4), 583-592.
- Smith, E. R., Coats, S., & Walling, D. (1999). Overlapping mental representations of self, in-group, and partner: Further response time evidence and a connectionist mod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7), 873-882.
- Suh, E. M. (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6), 1378-1391.
- Suh, E. M., Diener, E., & Updegraff, J. A. (2008). From culture to priming conditions self-construal influences on life satisfaction judgm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9(1), 3-15.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2), 193-210.
- Trafimow, D., Triandis, H. C., & Goto, S. G. (1991). Some tests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rivate self and the collectiv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5), 649-655.
-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 Turner, J. C.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concept: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r. In E. J. Lawler (Ed.), *Advances in group processes: Theory and research*, vol. 2: 77-122. Greenwich, CT: JAI Press.
- van Baaren, R. B., Maddux, W. W., Chartrand, T. L., De Bouter, C., & van Knippenberg, A. (2003). It takes two to mimic: Behavioral consequences of self-constr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1093-1102.
- Voyer, B. G., & Franks, B. (2014).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self-construal theory: An agency view of the processes of self-construal.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8(2), 101-114.
- White, K., & Lehman, D. R. (2005). Culture and social comparison seeking: The role of self-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2), 232-242.
- Wiekens, C. J., & Stapel, D. A. (2008). I versus We: The Effects of Self-Construal Level on Diversity. *Social Cognition*, 26(3), 368-377.
- Ybarra, O., & Trafimow, D. (1998). How priming the private self or collective self affects the relative weights of attitudes and subjective nor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4), 362-370.

1 차원고접수 : 2015. 09. 09.
수정원고접수 : 2015. 11. 02.
최종게재결정 : 2015. 11. 05.

Implicit Measurement of Attitude Change toward Partner by Priming of Weness/Individuality

Jaechang Bae

Gyuseog Ha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investigated empirically different attitude in implicit level between the priming of weness and of individuality. Using Implicit association test, we measured changes in the implicit attitude (distance measured by reaction time) before and after (repeated measures) priming weness or individuality (between group variable) in Experiment 1. It was found that the psychological distance was not changed in the individuality primed condition but was reduced in the weness primed condition. In Experiment 2, we used Single target IAT to disentangle the potential confounding effect in the original IAT. It was found that the neutral attitude before the priming was changed in negative direction after individuality priming but in positive direction after weness priming. The results of present study demonstrated implicit dynamic of attitude change as a result of weness priming. This indicates that the interpersonal distance is reduced in the weness mode of relationship in contrast to the mode of individuality, providing experimental support to cultural psychology of preferring we over I among Korean people.

Keywords : weness, individuality, psychological distance, priming, IAT, ST-IAT, Korean